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 사회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정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개인이익 앞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공익을 뒷순위로 밀어낸다는 것이다.

또 행정학에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의 양(量)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부하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을 자꾸 확대시키고자하는 집재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일이다. 영국이 식민지국가 53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262명이었다. 그런데 그 후 식민지가 22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무려 1800여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파킨슨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일반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공무원은 국민에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동안 국가의 형태구축, 사회질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 국가의 틀을 세웠고, 10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공무원들의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윤리와 쌀 직불금

추진력은 우리나라를 세계 12대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나라의 최우수인력이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엘리트 계층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수행한 일 중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해진 일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위장전입, 아파트 전매, 가짜 농지증명 등이다. 이러한 행정 관행은 법적 문제는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도덕적, 법

적 기준에 맞추다 보니 문제가 된 경우를 청문회 등에서 많이 보아왔다. 시대가 바뀌면서 도덕적 불감증이 도덕적 감증으로 바뀐 것이라고나 할까.

이번 쌀 직불금 수령 문제도 그냥 지나갈 뻔했으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례가 튀어나오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쌀 직불금 수령 문제는 몇 개의 구조체계가 뒤엉켜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쌀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나 쌀 직불금을 못 받는 농민, 부재지주

면서 쌀직불금을 타먹는 공무원,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 문제를 덮어두었는가의 여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당, 야당 등이 뒤범벅이 되면서 시중의 화제거리로 등장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쌀직불금을 받은 부재지주 공무원이 농민인 경우, 유산으로 상속받은 경우, 진짜 부재지주이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방법은 쌀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는 반환해야하고, 정도가 심한 고위 공무원은 문책해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쌀직불금 몇 푼보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쌀 직불금 수령 문제는 엉뚱하게 그동안 잠잠했던 소작농과 부재지주의 분쟁가능성, 논농사 포기로 인한 쌀 부족현상 문제, 지방 농지 값의 폭락가능성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공무원들이여,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私益)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해 일 해왔던 선배, 동료공무원들 염두에 두고 일을 하면 어떻겠는가.

정치인들이여, 같은 사안(쌀직불금수령)을 놓고 나는 잘못했고, 나만 잘못했다는 치졸한 술수로 국민의 이목을 끌려는 낮은 계락을 멈추라. 우리 국민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올지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불가(佛家)의 팔정도 가르침의 하나라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된 것이다. 심하게 절단이 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봉합 수술은 하겠지만 그 손가락을 다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가락 운동을 몇 년간 꾸준히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손가락은 온전한 다른 손가락보다 반 마디가 짧다.

가끔 아버지의 손을 보면 그 짧은 다친 손가락이 보인다. 그 손가락은 우리 가족을 살리는 아버지의 진실한 땀방울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들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하고 말해주는 것 같다. 나도 얼마 있으면 졸업하고 언젠가는 가정을 가질 것이다. 나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버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결코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사랑은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한다. 혹시 나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을 기울여보자.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면 더욱 따뜻한 부처님의 사랑을 보내야 할 때이다. 당신의 작은 마음과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놓을지도 모른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대구 범불교도 결의대회의 의미

9월 27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11월 1일에는 대구에서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구 경북범불교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구대회는 서울에서 열린 범불교도 대회의 지방 확산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시사하듯 내용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서울 대회의 명칭은 대정부 규탄의 성격이 강했지만 대구대회의 명칭은 매우 전형적이다. 규탄 기조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불교도의 역할 모색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사실 종교편향과 관련한 불교계의 정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강력한 반발 심리에 기초한 대응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성을 통한 재발방지의 주문이다. 이 두 논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사안을 매우 역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강력한 대응 속에 자성과 자정을 통한 변화의 기를 갖추기를 모색하자는 의지가 결집되고 있는 추세다. 대구 대회의 명칭에 '사회갈등 해소' '결의대회' 등의 단어가 들어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 모든 것이 공부재료다. 지금의 종교편향 사건들이 불교계에는 더 없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구대회는 자성과 자정을 통해 전법과 인재발사,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만들기의 출발선이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 재고해야

문화재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 최근 6년간의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38.4%에 머물러 있다. 국가기관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외곽지대에 방치된 유물도 35만점이나 된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업무활용도는 50% 선이다. 10년간 100억 원을 투입한 순천 선암사 보수공사의 경우 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18대 국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한심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문화재청의 업무에 대한 질타 수준을 넘어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가적 개념을 새롭게 짜야 할 정도다.

최근에 열린 문화재 수리보수 기능인 선발에는 1700여 명이 응시를 했다. 문화재청의 정책과 업무관리는 정성을 놓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현장을 지킬 기능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수리보존의 전문직에 대한 관심도는 상승하는데 비해 당국의 업무 시스템과 효율성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과거이자 미래다. 과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화재 정책은 근시안적인어서도 보고서용이어서도 성과만족형이어서도 안 된다. 혼을 담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허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문화재청에 대한 관심을 '국정감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기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더욱 외로워지기도 한다. 대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하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답한 학생이 여러 명 됐다. 반가웠다. 그 중 감동적인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따뜻한 부처님 자비 가족에게”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87)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해요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진다. 학력위주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대졸자들 틈에서 겨어야 할 고통이 있는 것 같다. 가난해서 못 배운 한, 그러나 나는 아버지 덕에 편히 공부하고 있다. 현재 나는 대학생이지만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신이 부끄럽다. 아버지만큼 성실히 공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께 죄송하다. 고졸인 나의 아버지는 어느 일류 대학 나온 아버지보다 나에게서 최고의 아버지이다. 아니, 어떤 석사, 박사 아버지와의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분이다.

하기 위해 직장을 나와 작은 공장을 운영하게 됐다. 시작은 순조로워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사는 편이었다. 그러다 큰 부도를 두 번이나 맞고 거의 파산 직전에까지 몰리게 됐다. 한 동안 우리 가족들은 뽕뽕이 흩어져 살았다. 그 때 엄마와 난 돈이 없어서 몇 달을 거의 라면만 먹고 살았다.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이었다. 난 그래서 지금도 라면이 싫다. 친구들이 같이 먹자면 곤란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 지방에서 혼자 계셔야 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먹고 지내셨을까 생각해보게 됐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년간 성실하게 뛰어서 다시 일어났었다. 거의 기적적으로 파산직전의 공장을 다시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아버지의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좋은 직장을 다니다 당신의 사업을

고졸 아버지의 노력과 사랑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고 하니 각종 취직 시험에는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졸생시절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주식회사 00기업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다. 고졸, 그것도 공고 졸업이라는 약조건과 대졸자들과의 학력 차이를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다. 그걸 보면 아마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었을 것 같다. 고시에도 쉽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게 일하고 생활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

아직도 가끔 아버지는 "대학에 못 간 것이 평생 한이 된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들어가 공부 좀 해 보고 싶구나"라고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면

탈 종 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법 명 : 수산(문복수)
• 주 소 : 부산시 북구 구포동 1208-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불교조계종삼화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법하

탈 종 공고
• 사찰명 : 천지암
• 법 명 : 청안(김형근)
• 주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고
• 사찰명 : 천지암
• 법 명 : 도일(김형근)
• 주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74
• 사찰명 : 성도사
• 법 명 : 지관(이주훈)
•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14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공 고
교현사(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 주지 위술환)에서 2008. 7. 29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남골당의 모든 소유권 및 분양권은 교현사 자체에 있으며, 교현사는 2008. 10. 29일 현재까지 분양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분양권 역시 외부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본 건과 관련하여 분양권자나 소유권자를 사칭하여 분양권 매매, 매도, 공사관련계약 등의 행사를 하는 자를 발견하여 신고하시면 사법처리 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락처 : 교현사 종무소 031-712-4488